

# 성만찬 특강 ( I )



성만찬은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교회의 거룩한 성례이며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목양의 은사이다

예수생명그리스도의교회

김요한 목사

Facebook "김요한"

그리스도의교회총회 [www.ccas.or.kr](http://www.ccas.or.kr)

## 목 차

1. 생사기로의 한국교회와 그 대안-----	p2 ~ p4
-은준관 박사 (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자)	
2. 성만찬의 의미	
1) 주님을 기념하는 것-----	p5
2) 복음을 전하는 것-----	p6
3) 보이는 말씀-----	p7
3. 성만찬의 중요성	
1)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성만찬-----	p8
2)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p9
3) 주일 모임의 목적-----	p10
4) 임마누엘의 축복-----	p11
4. 성만찬 목회	
1) 성경과 성만찬으로-----	p12
2) 주님께서 축복하신 성만찬-----	p13
3) 낮은 은혜-----	p14
4) 생명 얻는 믿음-----	p15
5) 우상을 멀리하라-----	p16
6) 천국의 소망-----	p17
7) 교회 성찬기-----	p18

## 1. 생사기로의 한국교회와 그 대안 (크리스천투데이 2014.03.09)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자로서 명예 총장인 은준관 박사가 8일 서울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린 강남포럼 강사로 나서, ‘오늘의 한국교회,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중략)

한국교회 트렌드: 성장, 성장 이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은 박사는 시기별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3가지로 분석했다. 보통 미국교회의 트렌드가 약 20년 뒤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추세라고도 했다.

첫번째는 ‘교회 성장기’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며 개신교인이 무려 3천만명이 늘어 전체 인구의 무려 68%, 가톨릭은 23%에 육박했다. 강단에서는 반공주의와 기복주의 설교가 넘쳐났다. 기독교가 나라의 역사와 전통까지 바꿔버릴 만한 힘이 있었다. 한국도 1970~80년대 비슷한 현상을 겪고 개신교인이 1,200만에 육박하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교회 성장기’가 미국에서부터 무너지고, 두번째 트렌드인 ‘교회 성장 이후기’가 온다. ‘교회 성장 이후기’라는 말은 단순히 성장기 이후가 아니라, 이제 교회 성장이 끝나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 박사는 “히피·흑인·학생운동 등 60년대 ‘문화충격’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오판하면서 미국교회가 수렁에 빠졌다”며 “한국교회도 100주년을 기

넘었던 1985년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교회를 떠났고, 기업가들도 교회 밖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 떠났고, 교회 안에서 집사·권사 시켜주니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밖 클럽 활동이 더 좋으니 떠났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교회 성장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했다.

세번째 트렌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의 등장이다. 이전까지는 한국교회가 20년 주기로 미국교회의 추세를 따라갔는데, 2010년경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현상으로 이 같은 세대가 나타났다. “교회도, 종교적 냄새가 나는 것도 싫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소위 ‘가나안 신자’(‘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이들) 등도 여기에 속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2050년경 한국교회 신자 수가 300~400만으로, 교회학교 학생 수가 40만으로 줄어들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8년경 교회 재정이 현재의 50%로 줄어든다고 예측한다. 은 박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대답해야 한다”며 “이러한 흐름에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코딩’과 ‘디코딩’ 맞지 않으면, 열심 낼수록 잘못될 수도

은 박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코딩’(Coding)과 ‘디코딩’(Decoding), 즉 이러한 시대적 징조와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교회를 망치고 젊은이들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준관 박사는 이 같은 시대적 현상에 대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놓고 있는 해법들로 ‘영성과 도덕성 회복’, ‘민족복음화’, ‘축복성회’, ‘지역사회 봉사’, ‘선교’, ‘문화유산 지키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 소중한 것들이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딩과 디코딩이 서로 맞지 않다”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에게, 우리는 지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은 박사는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CCM인가, 교회 건축인가, 사회사업인가.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제도·시설의 부재가 아니라, ‘우민목회’로 ‘영적 문맹’들을 만든 것”이라며 “우리가 신자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감소 추세 역행하는 美 동방정교회의 4가지 특징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동방정교회를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했다. 미국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출신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미국 감리교회가 교인 수 12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반대로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은 박사는 미국 동방정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나라를 순례하는 주일공동예배’(주일신학)다. 은 박사는 “개신교는 주일신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주일은 안식일(토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는 종말론적인 날이며 죽음을 꺾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라며 “즉 주일예배는 설교나 의식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 주님

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종말론적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종말론적 믿음으로 사는, 쉽게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동방 정교회는 매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은 박사는 역설했다.

은 박사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간 개념부터 잘못되어, 주일만 거룩하게 보내고 나머지 날들은 세속적으로 보낸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파편화된 신앙을 한다”며 “주일신학을 근본으로 하는 예배 회복,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서연구(화요일)’다. 은 박사는 “온전한 사람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배우는 자”라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설교(케리그마) 중심이고 그 다음인 가르침(디다케)이 없다. 교인들이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구역·셀·속회 등과 같은 ‘신령한 교제’(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단순히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며, 넷째는 ‘하나님나라 증언으로서의 일터와 삶(월-토)’으로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다.

수평이동에서 ‘살아남은 작은 교회들’의 3가지 특징은

은 박사는 또 최근 대형교회로의 수평이동 때문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은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다. 첫째는 ‘코어 멤버(핵심 교인)’가 있었다는 것, 둘째는 지역의 아픔을 조명하고 (단순히 사회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니멀 오퍼레이션’으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거룩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는 결론으로 한국교회가 시대의 징조를 정확히 읽는 눈을 키우고, 신자를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예배·교육·교재 등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대형교회를 모방하지 말고 색깔 있는 교회를 만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추세대로면 앞으로 교인 수는 늘지 않는다”며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소수의 교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아니냐”라고 말했다.

## 2. 성만찬의 의미

### 1) 주님을 기념하는 것

-성경 말씀 : 고전11:23-24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용 : 성만찬은 첫째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만찬에 대해 우선 그 성격부터 분명히 하고 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독교안에서 성만찬에 관한 의견이 가톨릭의 “화체설”부터 종교개혁 때 루터가 주장한 “공재설”과 또 그에 반발한 츠빙글리의 “단순 기념설” 그리고 맨 뒤에 나온 칼빈의 “영적 임재설”까지 제각기 달라 오늘까지도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성만찬에 대한 이해나 의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많은 교회가 성만찬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성만찬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있어 결과적으로 교회의 중대한 표징인 성례전이 힘을 잃고 무너짐으로서 신자들이 성만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얻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데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가장먼저 주목해야할 말씀이 고린도전서11:24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같이 성만찬은 우릴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념은 헬라어 “아남네시스”인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당시의 사건으로 돌아가 주님을 깊이 회상하며 행하는 기념으로서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우릴 갈보리 현장으로 인도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성만찬은 주님을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영혼에 믿음과 온갖 은혜를 공급하는 살아있는 성례인 것이다.

참고로 1983년에 열렸던 WCC총회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성만찬의 의미를 첫째 “성부하나님께 감사”, 둘째 “그리스도의 기념”, 셋째 “성령의 임재”, 넷째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다섯째 “하나님나라 잔치”로 정하고 그 기초를 마련한바 있다.

아무쪼록 오늘도 모두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성령님과 함께 성만찬의 떡과 잔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념함으로 주님과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란다.

## 2)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 말씀 : 고전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용 : 성만찬은 둘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첫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전서11:26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곧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보면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릴 살리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 세상에서 성만찬만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것이 없는데 그로인해 우리가 성만찬을 떤 때는 자연스럽게 먼저는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져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자신을 복음위에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다.

또 이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복음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소식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이웃에 전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만찬을 떤 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형제자매가 생각나거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란다.

한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세상 끝 날까지 한순간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부름 받은 종들에 의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만민을 향해 쉼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회는 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후원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이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성만찬의 떡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또 장차 재림하실 때의 그 몸까지 다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교회가 성찬식 때 “마라나타”를 외치며 성만찬의 떡을 떤 것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떡을 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서 꼭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자라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란다.

### 3) 보이는 말씀

-성경 말씀 :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용 :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이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영적 존재였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결국 영영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종들로 진리와 영생의 길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요한복음5:39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또 성경을 근거로 선포하는 설교와 또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도 성만찬의 경우 어거스틴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만찬이 주님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듯 분명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존 칼빈은 성만찬을 “말씀의 부록”이라거나 또는 “건물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는 건물이 기둥으로 괴어아만 서있을 수 있는 것같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서있지만 거기에 성만찬이 함께할 때 기둥으로 받친 것같이 든든히 서고 또 말씀의 부록처럼 더 쉽게 깨달도록 돕는 것이다.

이같이 성만찬은 교회의 설교나 또는 성경을 통해 단순히 주님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만찬의 떡과 잔으로 주님을 친히 뵈고 우리 온 몸으로 만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시청각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처럼 교회도 주님을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성만찬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또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감으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란다.

### 3. 성만찬의 중요성

#### 1)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성만찬

-성경 말씀 : 고전11:23-24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 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용 : 성만찬은 주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분부하신 교회의 성례이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곧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를 행하도록 분부하신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누구도 소홀할 수가 없는 교회의 중대한 성례로서 이에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반드시 성만찬을 떼었고 또 그와 같은 전통은 오늘까지도 전 세계교회에 이어져 굳이 가톨릭교회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교회를 비롯하여 루터교회, 성공회, 그리스도의교회 등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매주일에 모여 주님의 성만찬을 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츠빙글리의 “단순 기념설”을 좇아 성만찬을 연간 한 두 차례만하고 그마저도 의식에 치우침으로서 성만찬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신학자 폴 톨리히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지금 우리는 성례전의 죽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장로교를 있게 한 존 칼빈도 교회가 성만찬을 일 년에 한 두 번만하는 것은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초대교회를 따라 매주할 것을 권하였고 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홀리클럽에서 매주 두 차례씩 성만찬을 행하여 “성례전주의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성만찬에 열심이었는데 그는 성만찬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3대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신학에 매몰되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성만찬에 대해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분부를 받들고 또 초대교회의 전통을 좇아 하루속히 회복해야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기념은 단순히 년 1-2회로 족하다거나 또는 성만찬을 자주하면 성만찬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은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특히 목사에게 성만찬은 주님께서 주신 목양의 은사로 목사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는 것은 목사로서의 책무와 주님의 분부를 저버리는 것과도 같다.

아무쪼록 오늘도 모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분부를 받들어 떡을 떼는 모든 이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한다.

## 2)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성경 말씀 :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용 :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때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이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주시어서 자기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자기 죄를 대신해 흠 없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생명을 보전하고 은총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오늘날엔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한편 요한복음4:24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과 진리”란 우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피가 있는 성만찬 예배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만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일뿐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진리와 영원한 생명가운데로 인도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끝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후에 세상에서 삶으로까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12:1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아래 성만찬으로 주님과 또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앞으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릴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바란다.

### 3) 주일 모임의 목적

-성경 말씀 : 행20: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내용 : 초대교회가 주일에 교회로 모인 것은 성만찬을 떼기 위함이었다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의 이탈과 함께 갈수록 모임이 줄고 있어 고민이 많다.

본래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란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한다.

모여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마다 교인들이 잘 모이질 않고 갈수록 가나안성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이탈이 심한 편으로 교회는 그럴수록 무엇보다 교인들이 주일에 왜 모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교회 본연의 모임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가 주일에 왜 모여야 하는가는 사도행전20:7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원형이기도한 초대교회가 주일에 주님의 성만찬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때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가 컷가에 쟁쟁하게 남아있을 때였기도 한데 그래서보면 얼마 전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유적지가 예루살렘형무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천명도 넘는 사람이 앉아 예배할 수 있는 큰 홀이었고 그 정중앙에는 벽돌로 쌓아 만든 성찬대가 있었는데 그 바닥 둘레에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당시 교인들의 신앙고백이 새겨져있어 초대교회가 주일에 성만찬을 떼기 위해 모였고 또 성만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버리고 예배 때 성만찬을 생략한 채 설교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서 교회가 주일에 왜 모여야 하는지 교회의 중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로인해 교인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아 교회를 쇼핑하는가하면 가나안교인들을 양산하며 이 모든 위기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성만찬을 회복하고 교인들에게 주일모임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만찬을 떼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바로 알리면 교인들에게 주일성수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모인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일에 모여 성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 4) 임마누엘의 축복

-성경 말씀 : 요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용 : 성만찬은 주님께서 내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할 신앙으로 창조신앙, 십자가 구속의 신앙, 부활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신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1:23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은 “예수”말고도 “임마누엘”이신데 주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임마누엘의 복된 신앙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말씀과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마다 기름을 부어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도록 하신다.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6:56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에도 보듯이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안으로 오셔서 거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로인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만찬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뿐 아니라 대면신앙도 갖도록 하는데 그것은 성만찬이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할뿐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 지켜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대면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로인해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그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도록 큰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 때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한 주간도 영혼 안에 살아서 “내가 주안에, 주가 내안에”거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과 또 주님 앞에 서있는 대면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 바란다.

#### 4. 성만찬 목회

(성경과 성만찬으로, 축복하고, 병을 낫게 하고, 구원의 진리와 성도의 삶과 천국을 가르친다)

##### 1) 성경과 성만찬으로

-성경 말씀 : 눅24:30-31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내용 : 성만찬은 성경과 함께 목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은사요 수단이다

누가복음24장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예루살렘에 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온다.

당시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시며 자신을 알아보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마음만 뜨거웠을 뿐 끝끝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마을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재현해 주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과 함께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떡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그 답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서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마치 안약과도 같은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서 볼 수 있는 “성경과 성만찬”이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먼저는 성경말씀으로 주님께 대해 듣고 그와 함께 성만찬의 떡과 잔으로 그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양에 있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을 때 여러분의 어두워진 영안이 밝아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밝히 보기를 원한다.

또한 무덤에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도 밝히 보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 바란다.

## 2) 주님께서 축복하신 성만찬

-성경 말씀 : 마26:2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내용 :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만찬을 받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절대자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말씀을 거역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세상에 온갖 저주가 들어와 그로인해 사람들은 복에 목마르고 복 받는 일에 매달리게 됨으로서 세상엔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민족도 보면 예부터 집 대문에서부터 집안가구에, 이불과 베개와 의복에, 또 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에까지 복자를 새겨 넣을 정도로 복 받기를 열망하였는데 오늘까지도 곳곳에 무당이나 점집이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떡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잃었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한다.

축복이란 말 그대로 남의 일이나 미래에 대해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은 그 자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첫째는 믿음 가진 부모가 그 자녀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복이 임하고 둘째는 구약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때마다 축복한 것처럼 오늘날엔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엔 또 다른 축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만찬 때 하신 주님의 축복이다.

마태복음26:26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축복이 놀라운 것은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만찬을 받는 제자들을 친히 축복해주신 까닭이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은 그때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성만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만찬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해도 하나님의 복이 넘침으로 삶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한다.

### 3) 낮는 은혜

-성경 말씀 : 사53:3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용 : 성만찬의 떡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 맞으신 주님의 몸이시기도 하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어떤 병은 고통이 너무 심해 밤새 한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거나 또 어떤 병은 불치병으로 기약도 없이 치료를 받다가 하면 또 어떤 병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병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해야만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질병은 우리의 삶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저주 그자체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무서운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저주도 함께 들어왔는데 질병은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질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사야서53:5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그 몸에 채찍을 맞도록 하셨다.

당시 로마병사가 주님께 휘두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 그 끝에 쇠나 뿔조각을 박은 것으로 사람이 그 채찍에 맞으면 즉시 살갓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그래서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낮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 기독교는 치유하는 종교가 되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낮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주일에 모여 떼는 성만찬의 떡은 주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찢기신 주님의 몸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가 간절한 믿음으로 그 떡을 받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질병이 떠나거나 또는 점차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된다.

이는 마치 열 두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 가에 손을 댈 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병에서 나은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으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마다 질고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 4) 생명 얻는 믿음

-성경 말씀 : 요6:5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용 : 성만찬은 우리로 생명 얻는 믿음을 가르쳐준다

우리 사람에게 자기 목숨만큼 그 가치가 크고 중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목숨과는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주님도 마태복음 16:26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셨는데 진정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중에 가장 큰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넣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가장 값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 주님은 요한복음6:53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명확히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교훈하신 것이다.

한편 성만찬은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모두 담아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만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울러 그 분만이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만찬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온갖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데 그로인해 우리 스스로 거짓 것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을 뭘 때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 5) 우상을 멀리하라

-성경 말씀 : 고전10: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내용 : 성만찬은 우리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 첫째는 하나님외의 다른 신들을 두거나 또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도록 하셨다.

그것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여 다른 신을 두거나 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겐 큰 진노를 일으켜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경계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마다 온갖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많은 이들이 세상을 좇아 물질을 탐하다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그로인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3:5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넉넉한 믿음으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다.

특히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아 이를 회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만찬으로 늘 주님의 거룩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는 고린도전서10:21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성만찬을 땔 때마다 자신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혹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릴 세상에서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함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란다.

## 6) 천국의 소망

-성경 말씀 : 마26:29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용 : 성만찬의 포도주는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실 “새것”의 예표이다

오늘날 세상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살기에 편해지고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좋은 교인들마저 천국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때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주거나 또는 성만찬을 통해서도 천국을 일깨우고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잔을 나누신 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6:29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것”을 마실 것을 약속해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이같이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하질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흰 옷을 입으며 또 보석 집에 사는데 다만 지금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 속에서 열두 가지 실과를 먹고 산다. 요한계시록22장에도 보면 천국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또 약재료인 그 나무의 잎 사귀들로 말미암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을 기약하며 그곳에서 우리와 마실 “새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로인해 우리가 성만찬의 잔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잠시 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실 “새것”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잔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린 그 소망으로 인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또는 반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도 모두가 성만찬의 잔을 받을 때 다시 한 번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깊은 위로와 천국의 참된 소망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모두가 그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얻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것”을 나누며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란다.

7) 교회 성찬기



성찬식은 가장먼저 간단히 성만찬 말씀을 나눈 다음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찬송을 부르며 집례자가 성찬위원에게 성찬기를 건네고 교인들에게 잔을 나누어주도록 하는데 배찬과 찬송이 끝나면 집례자의 인도로 교인들이 다 같이 떡을 오른 손으로 든 다음 집례자가 “이 떡은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십니다”라며 주님을 기념하면 모두 아멘하고 떡을 먹고 또 이어서 잔도 집례자의 인도로 모두가 다 같이 오른 손으로 든 다음 집례자가 “이 잔도 주님께서 주시는,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라며 주님을 기념하면 모두 아멘하고 잔을 마시는데 이같이 기념을 마치면 감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찬송을 부르며 성찬위원이 잔을 거둬들어서 모든 의식을 마친다.

(이 성찬기의 장점은 무엇보다 떡과 잔을 받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이 주님 앞에 있는 “대면 의식”을 갖고 성만찬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은 집례자의 인도아래 다 같이 떡과 잔을 들고 동시에 주님을 기념하고 다같이 “아멘”할 수 있는 것임)

<b>&lt;성 만 찬&gt;</b>		
성 만 찬 말 씀	-----	인 도 자
성 만 찬 기 도	-----	인 도 자
떡과 잔을 나 눴	----- 405장 (새 305장) -----	성 찬 위 원
떡과 잔으로 기념함	-----	다 같 이
감 사 기 도	-----	인 도 자
떡과 잔을 거 듦	----- 285장 (새 228장) -----	성 찬 위 원